

古下 宋鎮禹 先生의 民族과 民族理念에 대하여

진덕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1. 머리말

고하 송진우 선생은 한국의 민족운동사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던 지도자의 한 분이셨다. 그 시절의 이름 있는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민족문제에 매달렸는데 그 중에도 고하 송진우 선생은 한국 민족의 당면 현실성을 바탕으로 민족의 미래를 추구하려는 이론-실천의 양면을 겸비했었다.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이 글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로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과 민족이념에 대한 생각과 논리를 살펴보려고 한다.

둘째로는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운동에서 민족이념의 실천적 가능성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찾아보려는 것이다.

셋째로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이념의 관념이나 실천적 전개가 그 뒤 한국의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이념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곧 그 시대 한국의 민족과 민족운동을 인식하는 한 가닥 이해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렇지만, 고하 송진우 선생의 시절에도 민족과 민족이념은 혼돈의 논리로 뒤엉켜져 있었고, 관점에 따라 서로를 적대적으로 공박하는 대결의 논리로 동원되고 있었다. 그 시대의 민족이념에 대한 논의는 시정의 한담처럼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한국 민족의 현실적인 혼돈과 갈등도 어느 면에서는 민족과 민족이념에 대한 인식논리의 미정립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과 민족이념에 대한 논의야말로 그 뒤의 한국정치사회에서 빚어졌던 혼돈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고하 선생의 민족불변론

고하 송진우 선생에게 민족은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출발점이며 행동의 기반이었다. 민족을 위한 시대사명에 앞장섰음도 고하 선생의 민족에 대한 이러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고하 송진우 선생이 활동했던 시대는 민족사회의 격동기였다. 전제적인 왕조체제로부터 근대적인 국가체제로의 이행기였으며, 이 시기의 혼돈은 한국의 정치사회가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서 벗어나 제국주의의 침탈로 식민지로 전락되는 민족 비운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민족과 민족이념은 “식민지적 침탈에의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일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그만큼 민족운동의 절실함을 의미했다. 이제 이러한 성격을 고하 송진우 선생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890년, 고종 27년에 전라남도 담양군 고지면 손곡리에서 탄생했다. 그해 4월 17일에는 대왕대비의 승하로 왕실을 비롯한 온 나라가 온통 이 문제에만 매달려 지내고 있었다. 조선왕조를 둘러싼 제국주의 외세의 침탈이 점점 가중되는데도 대왕대비의 승하가 왕조의 핵심과제로 제기되었음은 전형적인 왕조체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왕조체제는 급변하는 세상과 외국의 침탈에다 곤궁한 백성에 대한 시책에서는 달라짐이 없었다. 왕조체제는 여전히 중세적인 통치 구조에 안주하려는 체제 고착적인 현상만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시대 상황에 대한 민중의 폭발적인 봉기가 1894년의 동학혁명이었다. 이어 을미사변과 명성황후의 참변을 겪는 조선왕조체제의 말기적인 혼돈을 빚어지게 되었다.

바로 이 시기에 고하 송진우 선생은 어린 나이에 애국자이자 충군주의자였던 기삼연(奇參衍)선생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잊게 된 학습의 중요 내용은 강고한 충군지향적인 애국심이었다. 그 뒤 고하 송진우 선생은 17살에 담양 창평의 영학숙(英學塾)에서 신학문을 접하게 되었으며, 이어 일본 도쿄의 세이소쿠영어학교(正則英語學校)와 긴조중학교(錦城中學校), 그리고 와세다(早稻田大學)와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일본 유학을 통하여 무너진 국가를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절감했으며 국가와 왕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고하 송진우 선생에게서 이 시기의 일본유학은 왕조는 변할 수 있어도 민족은 불변한다는 확신감을 갖게 되었다. 이는 고하의 민족의식에 대한 깨달음이며, 여기에서 조선왕조가 일본의 침탈로 종언을 맞아도 한민족만은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점에서 국권의 회복은 조선왕실의 복원이 아니라 민족의 원기를 되찾는 것임을 절감함으로써 민족이념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립할 수 있었다. 한때 그는 동도유학을 중단했으며 즉각 귀국하는 결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는 고하 선생의 충군애국심의 일면을 드러낸 것이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면서 민족의식과 그것의 논리화에 힘을 쏟았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바로 이러한 고하 자신의 민족에 대한 굳건한 신념의 실천이 중앙학교 교장 시절이었고 이때 그는 “민족불멸론”을 주장했다.

민족불멸론은 고하 선생의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다. 민족은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유기체로 파악했다.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비록 강물이 땅위로 흐르지 않고 지하로 스며들었다 해도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다시 지상으로 분출되어 장

강을 이루게 된다고 확신했다. 이점에서 고하선생의 민족불멸론이야말로 한민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는 인식관점일 수 있었다. 중앙학교에서 고하 선생은 젊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민족관념과 그 정신을 가르침으로써 민족의 미래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감을 젊은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었다.

고하 선생의 민족불멸론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1) 민족의 고유한 역사의 흐름에 대한 깊은 천착과 인식으로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 2) 민족의 운명이 일시 비운에 처해도 민족정신을 올바르게 견지할 수 있다면 살아 있는 민족으로서의 미래를 맞게 된다.
- 3) 민족정신을 바르게 젊은 세대에게 교육함으로써 민족 미래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4) 민족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미래관을 기반으로 민족해방의 그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투쟁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시대상황에 적합한 시무론적 당위라고 강조했다.

민족불멸론에 대한 논의에서 여기에 다음의 글을 인용하려한다.

“단군성조 이후 삼국시대로 통일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을 세계에 흘려들어 보낸 위대한 민족”임을 전제했으며 그 때문에 민족적 고유성과 지속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김학준, 1990, 85). -- 고하 선생은 민족의 운명과 역사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때로는 지상을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땅속으로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우리는 불우하고 암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이 땅속을 흐르고 일식을 한 것과 똑 같다. 언제고 물은 흐르고 있고 또 언제고 일식은 견힐 때가 있다. 우리 민족도 이 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다.”(김학준, 1990, 85-86)

이러한 성격을 지닌 민족은 그 전개과정에서 민족형성기-민족발전기-민족쇠퇴기-민족재생기를 거치게 된다고 생각했다. 이를 생각해보면 그 시대, 즉 일제 통치기는 민족쇠퇴기에 해당되었다. 그 때문에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 민족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깊은 인식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단군성조를 비롯한 우리 조상을 올바르게 알고 그 깊은 뜻과 행동에서 민족의 의미와 정신을 깨닫게 하는 것이야말로 민족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고하의 민족에 대한 관념, 즉 민족불멸론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표출될 수 있었다. “민족 알기-민족 육구의 실현 -민족국가 수립- 민족가치의 성취”가 그것이다. 민족의 고유성은 민족 알기를 통해 체득될 수 있다. 우리 민족은 누구며,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이룩했는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민족 구성원의 기본

적인 의무라고 여겼다. 특히 식민지로 전락된 민족에게는 자주독립의 민족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의 일차적인 의무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튼튼한 민족국가를 이룩하는 것, 그것은 민족만년의 욕구로 이를 이룩함으로써 한국민족의 민족적 가치를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3. 민족주의의 본류와 문화 민족주의

고하의 민족에 대한 관념은 민족주의로 발전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민족은 “언어와 전통을 공유하는 일정 지역 거주민이 ‘우리’라는 특정의식을 공유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그러다보면 민족은 역사의 동질성을 갖게 되고 현실문제에 공동적으로 맞서게 되는 것이며,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된 의지와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 민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가치, 그것이 곧 민족주의이다. 그 때문에 민족주의는 원초적인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며, 민족구성원의 정치적 이념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사회에서나 민족주의는 하나로만 표출되지는 않는다. 각각의 생각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장될 수 있고 추구되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이라도 사는 방식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기에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의 공준이 지배한다.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민족독립을 최우선의 가치로 설정해야 하며, 민족국가 수립을 위해 전체 민족성원의 연대를 도모해야 한다. 그래야만 민족주의적 투쟁일 수 있다. 그만큼 민족주의는 민족국가의 수립을 최우선시하는 이데올로기이다. 민족구성원 사이에 연대가 무너지고 자기 집단의 이데올로기만 강조하는 것은 민족주의 투쟁과는 무관하다. 그것은 기껏해야 특정 이데올로기의 광신적 행동이거나 그것을 위한 투쟁일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고하선생의 민족주의를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첫째로는 민족주의의 실천지향성을 보여준 최초 지도자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흔히 통론으로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척사, 개화, 동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충군 왕조적인 성격이나 민중저항의 성격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민족주의 형성에서의 흐름이며 구체적으로 민족주의적인 성격에 걸 맞는 모습은 3·1운동에서 비로소 찾을 수 있게 된다. 그 운동을 주도했고 이념화했던 핵심 지도세력 중에 바로 고하 선생의 자리를 뚜렷하게 찾을 수 있다. 지금에 와서는 때때로 3·1운동을 지식인의 무저항 투쟁으로, 심지어 투항주의의 일면을 지닌 것으로 비판하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의 민족주의도 구체화될 수 있었고 결집된 형태로서의 성격을 표출할 수 있었다. 바로 이 일을 이룩한 지도세력 중에 고하 선생의 위치를 빼면 그 의미도 달라지고 만다.

둘째로 1920년대를 넘어서면서 “식민지 조선”의 독립투쟁은 몇 가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외의 무장독립투쟁, 외교론적 독립운동, 국내의 계급투쟁론, 그리고

실력양성론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일제식민지 통치기는 제국주의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로 민족투쟁은 온갖 신산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의 무장투쟁은 최대의 고통에 놓여 있었고, 최고의 험로였다. 외교론을 추구했던 독립운동도 잃어버린 조국을 강대국의 지원으로 되찾으려는 것은 자체가 때로는 강대국으로부터 문전박대를 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내의 계급투쟁론도 일제식민지 당국자와 여기에 부화된 국내의 왕조적 지배계급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투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실력양성론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간악한 일본 식민지 당국자의 감시 속에서 민족의 힘을 기르는 일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민족운동은 각기 그 주체세력이 놓여 있는 상황과 형편에 따른 최선의 선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 모두가 민족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각기 그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 전개된 다양한 민족투쟁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민족운동에 앞장선 이들 세력은 각기 서로를 격려하고 연대하면서 힘을 모으는 일이야말로 민족투쟁에서 공동전선의 형성일 수 있었다. 이를 저버리고 자기 일파의 투쟁만이 전부라고 미화하면서 다른 세력의 활동을 배격하는 일이야말로 그 일파만의 파쟁을 위주로 하는 민족투쟁의 분파주의 그 이상도 이하일 수도 없다.

그런데도 근자에 들어와 이처럼 다양한 민족투쟁에서도 특정의 논리나 행동만을 유달리 강조하면서 그것에서 벗어난 것은, 비록 반일 투쟁일지라도 민족운동과 무관한 것처럼 몰아붙이는 경우도 없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령 해외의 무장투쟁만이 유일한 민족투쟁이라거나, 국내에서는 계급투쟁만이 시대적인 적실성을 지닌 민족투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물론 이런 주장도 관점에 따라서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를 포괄하는 논의일 수는 없다. 모두가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족투쟁을 행했기에 서로가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민족투쟁의 기본이어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시대 국내의 민족운동을 ‘문화 민족주의’라고 규정하는 주장도 없지 않다. 이 말 속에는 국내 민족운동에는 실력양성론이 주도했기 때문에 총독부 지배에 수동적으로 대처했으며 문화 계몽주의적인 성격에만 치중된 온건한 민족투쟁의 성격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한다. 이 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내에서 전개된 실력양성론의 민족투쟁은 조선총독부와도 일정부분 타협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동조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도 일면의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즉 민족투쟁에는 실력양성론이나 무력 투쟁이나 외교론도 각기 상황에 따른 민족투쟁의 방식으로 이들 사이의 연대만이 중요한 과제였는데도 이를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뒷날 민족운동의 적지 않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거듭 주장하지만 식민지 통치하에서 국내의 민족운동과 해외의 민족투쟁이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대해야 했다. 그런데도 어느 하나의 민족투쟁 노선만이 절대적이라는 식의 논의는 민족적 연대라는 당위적인 논지와는 거리를 보여주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파당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점에서 문화민

족주의라는 말도 식민지 통치하의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민족운동을 어느 한 측면에서만 인식하려는 전제가 내포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민족운동을 문화 민족주의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성격을 외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차등화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점에서 국내의 민족운동은 민족운동의 다양한 성격을 그대로 담았던 총체적인 의미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것은 시대와 상황을 전제로 하는 민족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곧 고하 선생을 비롯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국내의 민족진영이 보여준 민족운동이야말로 현실 상황에서 추구되었던 민족투쟁의 한 표현일 수 있다.

4. 민족주의의 단계적 실천

고하 선생의 민족이념의 지향은 단계적인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민족이념의 전개에 일반적인 성격을 반영하게 된다. 알려진 것처럼, 민족주의는 (1)민족역량의 함양단계 (2)민족주도세력 형성단계 (3)민족투쟁단계 (3)민족국가 실현단계로 전개된다. 이러한 구분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모든 민족주의가 다 그렇게 전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때로는 겹칠 수도 있고 뛰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지향점, 즉 민족의 자주 독립국가의 실현은 정치적으로는 주체적이고도 독립적인 민족정치의 확립임을 의미하게 된다.

민족정치는 민족지도자의 선도적인 역할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제도적으로는 민주주의로의 귀착을 의미한다. 그 때문에 민족의 지도자가 전제자나 독재자가 되는 경우는 “민족주의의 반역”이며 “민족정치의 몰락”일 수도 있다. 또한 민족국가는 민족경제를 이룩해야 한다. 민족경제는 민족성원의 경제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며 경제주권의 확보를 의미하게 된다. 또한 민족국가는 민족문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전통문화를 현대화함으로써 민족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적 민족사회로의 통합의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민족국가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주의의 최고의 목표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구성원의 민족적인 자각과 민족역량의 고양에 선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민족적 각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민족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고하 송진우 선생의 민족주의도 민족국가의 실현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했으며 그것은 곧 민족역량의 함양과 고양에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1915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중앙학교의 학감의 일을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었다. 이 시기에 고하 선생은 젊은 학생들에게 “민족불멸론”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강력하게 심어줄 수 있었다. 그 뒤 중앙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3·1운동에다 온 힘을 다 쏟은 것도 바로 민족운동의 기반을 이룩했기 때문이었다. 실로 민족 역량의 고양과 민족 주도세력의 형성이야말로 고하선생이 온 심혈로 경주했던 민족적 대사업이었다. 뒤이어 민족 투쟁단계에 들어가서는 1921년의 동아일보 사장으로 일함으로써 시대사적인

성격과도 일치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는 “민족의 소리”로써 전체 민족 구성원의 자주 독립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 일선에서의 활동기관으로 작동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동아일보를 통한 민족투쟁이야말로 주로 문필을 중심으로 행해졌지만 그 위력은 식민지 시대 민족투쟁에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동아일보에 의해서 민족의 역사를 되살리는 운동이 이룩되었고 민족정신에 입각한 그 기개를 함양함으로써 발전된 민족의 미래를 지향할 수 있었다. 이는 실로 민족투쟁의 최전선에서의 분투 그 자체일 수 있었다.

고하 선생이 추구했던 민족이념의 전개는 마침내 제2차 대전의 종전을 맞아 그 최종단계인 민족국가 실현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 해방정국에서 고하 선생의 민족국가 지향은 다양한 민족적 정치세력 사이의 연대를 강조함으로써 전 민족적인 열망을 실현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특히 고하 선생이 식민지 총독부에서 제의한 치안권의 인수를 거부했던 것이야말로 민족지도자로서의 참다운 진면목 그 자체였다. 그리고 고하 선생이 주장했던 임정봉대론도 앞으로 이룩해야 할 민족국가로서의 정당한 실현과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고하 선생은 그 자신이 민족지도자의 핵심적인 세력이었는데도 권력의 점유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으며, 이승만, 김구 등 해외 독립지사와의 강력한 민족적 연대를 추구했음도 실로 고하 선생다운 민족이념의 표현일 수 있었다.

5. 마침 말

해방정국에서 한국의 민족주의적인 지향이 민족국가의 독립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의 시발이자 귀결이야말로 바로 대한민국의 건국이다. 민족국가의 정통성과 연대, 발전을 위한 민족주의적 기반이 식민지 시대 민족 지도자들의 헌신에서 시작되었다. 해방 후 고하 선생이 보여준 활동도 한국 민족주의의 지향에 그 초점을 두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민족세력 사이의 분열을 막고 연대를 이룩하기 위한 고하 선생의 노력이야말로 1945년 11월 23일 임정 요인의 귀국 이후에 한층 적극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다.

국내의 일부 좌파에 의해 임정에 대한 폄하가 행해졌던 시점에서 고하 선생은 임정요인들의 입국 이전부터 [환국지사후원회]를 조직했으며 임정요인 등 애국지사의 생활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에도 앞장섰다. 또한 [국민대회준비회]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특히 임정요인의 귀국 후 경교장에서 이들에게 후원금 전달에 앞장섰던 고하 선생의 “눈물겨운 활동”이야말로 건국을 위한 민족세력의 총결집을 위한 노력의 표현이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촌극은 후원금 전달과정에서 빚어졌던 일, 즉 임정 요인들 사이에 후원회 기금 중에 정재(淨財)가 아닌 돈이 들어 있다하여 이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물의가 빚어졌을 때도 고하 선생은 실로 의연함을 보여주었다. (고하

선생전기편찬위원회, 1990, 476.). 특히 그해 12월 중순부터 찬탁-반탁 문제로 정국의 소연함에도 고하 선생의 지향은 여전히 실천론과 연대론에 의한 민족국가의 수립에 그 의미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1945년 12월 30일 6시 15분에 흥한의 총탄에 쓰러지는 비극을 맞고 말았다. “일제 암흑시기를 통하여 민족불멸, 일제필망, 독립필지의 굳은 신념과 불굴의 투지로 일제에 항거하며 겨레를 이끌어 온 불세출의 위인”의 기세(棄世)는 실로 기막힌 순간을 온 민족에게 안겨주었다(앞의 책, 485-486).

돌이켜 보면 고하 선생의 일생이야말로 한국 민족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민족주의에 의한 민족국가의 건설이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게 된다.

참고한 글

- 김학준(1990) [고하송진우평전-민족,민주주의,언론인,정치가의 생애] 동아일보사.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65) [고하송진우선생전] 동아일보사 출판국.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90) [독립에의 집념-고하 송진우 전기] 동아일보사.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1990) [거인의 숨결-고하 송진우 관계자료집] 동아일보사.
손세일(1980) [인권과 민족주의] 홍성사.
신용하(1985)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심지연(2000) “고하송진우의 활동과 정치이념” 한국정치학회.
정진석(1983)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진덕규 :

-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 전공 역사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장, 이화학술원장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